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EXPLODED VIEW

가제 : 파더 맨: 한 가족의 로드트립!

새아버지의 학대와 숨막히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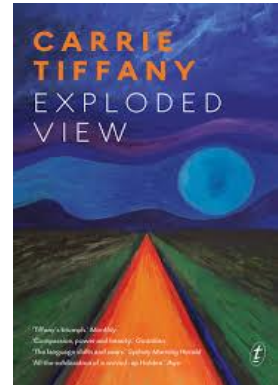
저자 : Carrie Tiffany

출판사: The Text Publishing Company

발행일: 2019년 3월 5일

분량 : 183 페이지

장르 : 문학 소설



★ 2020년 프랭클린상 후보 / 2020년 호주 북인더스트리 어워드 올해의 문학책으로 선정 / 퀸즐랜드 대학교 픽션 북 어워드를 수상

★ “이 책은 내가 이전에 읽었던 책과는 다른 책이었다. 카프카가 남긴 '책은 우리에게 얼어붙은 바다를 위한 도끼여야 한다'는 말을 보여주는 소설을 썼다.” - 『THE FRAGMENTS』의 저자, 토니 요르단

호주의 퍼스에 사는 주인공 소녀는 열두 살 나이에 비해 조숙하고 관찰력도 뛰어나며, 자동차라면 꿈쩍 죽는다. 소녀가 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지낸지도 벌써 17일 쯤다. 소녀는 학교에 다니는 대신, 집 차고에서 정식 허가도 없이 자동차 수리 일을 하는 새아버, 일명 '파더 맨(father man)'의 일을 도우며 지낸다. 파더 맨이 외출할 때면 소녀는 몰래 작업장에 있는 차들과 부품을 살피며 차에 대해 공부했다. 정비 일이 끝나면 부엌으로 가 두 살 터울난 오빠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오빠와 함께 TV를 보며 엄마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늦은 밤이 되면 파더 맨은 혼자만 갖고 있는 열쇠를 꺼내 집의 모든 문을 다 걸어잠궈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였지만, 소녀는 집 안의 파더 맨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소녀는 침대 밑에 아주 특별한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파더 맨이 애지중지하는 자동차 '홀든'의 설명서였다. 파더 맨의 눈을 피해 몰려 훔쳐온 이 책자에는 자동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한 함께 심지어 인체 해부학, 탈출 수단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었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들고 나면 소녀는 몰래 뜯어 둔 창문 틈 사이로 탈출해 텅 빈 도로 위를 걸어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파더 맨은 소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은지 묻는다.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침묵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파더 맨의 질문을 무시한 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화가 난 파더 맨은 식탁에서 일어나 가위를 들고 오더니 묶여 있던 소녀의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말았다. 그 광경을 함께 바라보던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려나간 소녀의 머리카락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날 밤 소녀는 파더 맨에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몰래 밖으로 나가 그가 애지중지하는 자동차 홀튼을 본다.

얼마가 지나 파더 맨은 갑작스럽게 가족 여행을 통보한다. 홀튼을 타고 8일 간의 호주를 횡단하는 로드 트립을 떠나 해안가에서 휴가를 보내자는 것이다. 집에서 차로 장소만 바꿨을 뿐, 홀튼 역시 파더 맨의 또 다른 제국이었으며, 차에 탄 사람들은 파더 맨의 규칙을 따라야 했다. 차 안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떠들어서는 안되었고 고속도로나 주요 도로 대신 다른 길로 운전해야 했으며 마을에 잠시 들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때문에 소녀가 창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황량한 들판뿐이었고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죽이는 잔인한 기계인지, 엄마가 어떤 가부장적 질서의 함정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모든 식구들이 한 곳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더 맨의 성적인 학대로부터는 잠시나마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소녀는 점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파더 맨과 집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짠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자 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침묵 속에서 이러한 일상적인 폭력을 견디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징과 은유, 독백이 가득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리 티파니(Carrie Tiffany)는 이십대 초반 호주 중부 지역에서 공원 순찰자로 일했다. 그녀는 첫 소설인 『Everyman 's Scientific Living』으로 오렌지 프라이즈, 마일즈 프랭클린 문학상, 가디언 퍼스트 북 어워드, 커먼웰스 작가상 후보에 오른 바 있으며 도비 문학상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프리미어 어워드에서 수상한 바 있다. 그녀의 또 다른 책 『Mates with Birds』 역시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제목 : SHADOW OF A DOUBT

가제 : 리미 스탠 - 동생을 죽인 건 내가 아니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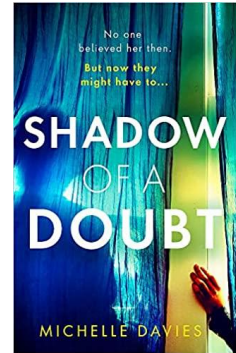
저자 : Michelle Davies

출판사: Orion

발행일: 2020년 11월 12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마지막 장까지 긴장을 풀 수 없는 음산하고 오싹한 스릴러 소설**

25년 전 카라의 남동생은 다름 아닌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했다. 카라는 동생을 죽인 혐의로 정신 병동에 보내졌고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다음 2년 동안 폐쇄 병동 생활을 한 후 가족과 떨어져 한 수양 가족에서 자랐다. 하지만 카라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진실은 자신이 결코 동생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온 세상은 겨우 아홉 살짜리였던 카라가 동생을 죽였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동생이 죽은 이후 처음으로 집에 돌아가게 된다. 카라는 진짜 범인 즉, 그 집에 숨겨져 있던 악한 존재와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몰랐다. 카라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1994년 7월 16일,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침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제법 시끄러웠다. 카라는 눈을 뜨자마자 시간을 확인했고 부모님 방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고는 동생 매티의 방으로 슬금슬금 기어갔다. 당시 카라는 몇 달째 악몽을 꾸게 만들고 있는 유령 ‘리미 스탠’이 이 집에 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밤마다 매티와 함께 리미 스탠을 찾아 다니는 모험을 벌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카라는 그 유령이 몇 달째 가족의 침실을 오가며 자신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라는 곧히 잠든 매티를 깨우는데 성공했고 겁에 질린 매티에게 하루 빨리 리미 스탠을 없애야 한다며 설득했다. 카라는 빨리 매티에게 그 유령을 보여주고 그 유령의 존재를 온 가족에게 알리고 싶었다. 카라는 리미 스탠이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소리를 듣고 바짝 긴장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계단에서 들려오는 뚝뚝대는 소리를 들으며 리미 스탠이 나타나면 그를 놀라게 할 참이었다. 하지만 곧 겁에 질린 여섯 살 매티는 커튼 뒤에 숨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커튼이 온몸에 감기는 바람에 질식하고 말았다. 카라는 매티를 구하려고 했지만 리미 스탠이 가까이 오자 겁에 질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매티가 죽은 후 경찰들이 도착했고 카라는 매티를 죽인 것이 ‘리미 스탠’이라는 벽 속에 숨어 있는 유령이라고 진술했지만 아무도 카라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후 ‘티모시 피트’라는 초자연 현상 전문가가 유일하게 카라의 집에 실제로 유령 리미 스탠이 존재하며 카라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의 주장은 단순한 가십 정도로 묻혀버렸고 몇 년 후 카라의 아버지마저 교통 사고로 죽는 바람에 카라네 가족은 산산 조각이 나버렸다.

2019년 서른 네 살이 된 카라는 비록 자신을 살뜰히 돌봐준 마음씨 좋은 수양 부모 존과 앤 덕분에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성인이 되었지만 늘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 카렌으로부터 친 어머니 아니타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카라는 어머니의 부고를 들은 이후, 다시 얼굴은 없고 희미하지만 선명한 검은색 옷을 입은 리미스탠이 동생을 죽였을 때처럼 차가운 손가락으로 자신을 붙잡고 커튼으로 퐁퐁 싸매는 악몽을 꾸기 시작한다.

한편 병동에서 아니타와 마지막 순간을 보낸 카렌은 카라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들은 모두 카라가 한 짓을 떠올리며 그녀와 연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카렌은 아니타가 죽기 전 남긴 유언대로,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에 카라를 초대해야 했다. 하지만 카라는 옛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선뜻 카렌에게 답하기 어려웠지만, 결국 앤과 함께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옛 집으로 돌아가 카렌을 만나기로 했다. 카라는 분명 자신이 고향 마을로 돌아가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파헤치기 위해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바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웃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생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리고 카라는 그 집에서 어머니가 본인의 모든 사유 재산과 집을 자신에게 남겼고 만약 카라가 상속을 거부할 경우 재산을 딱 반으로 나누어 카렌과 정신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과 위탁 가정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음을 알게 되었다. 카라는 평생을 언니에게 헌신한 카렌과 다른 가족들이 경악과 분노에 휩싸인 것을 보고 우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도대체 왜 25년간 단 한번도 연락이 없었던 어머니가 자신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긴 것인지, 과연 자신의 결백을 뒤늦게 믿게 된 것인지 궁금했다. 카라는 그 단서를 찾기 위해 두렵지만 끔찍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한다. 카라는 그 집에 머물며 자신의 복귀와 함께 리미스탠 역시 이 집에 돌아왔음을 알게 되고 ‘리미스탠’이라는 이름이 2차 세계 대전 당시 활동했던 한 영국 군인의 별명이라는 것까지 알게 된다. 또한 그 이름이 동생의 출생, 이모 카렌 남편 개리와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밝혀낸다. 카라는 빚빡힌 인생을 다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미셸 데이비스(Michelle Davies)은 20 년 동안 전문적으로 글을 쓰고 있다. Elle와 같은 잡지사를 거쳐 Grazia의 편집장이며, 현재 많은 여성 잡지 및 신문사에 글을 기고 하고 있다. 또한 Sunday Express의 도서 섹션에서 범죄 소설 리뷰를 맡고 있기도 하다. 전작으로는 DC 매기 네빌 시리즈가 있으며 현재는 런던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엄마로 살고 있다.

제목 : THE WEDDING THIEF

가제 : 결혼식 도둑

- 언니의 남자를 뺏은 동생, 동생의 결혼식을 망치려는 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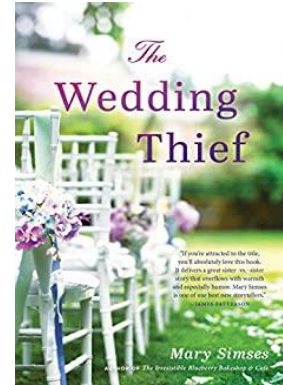
저자 : Mary Simses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20년 7월 7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로맨스



★ "완벽한 로맨틱 코미디, 분명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 『Parisian Charm School』의 저자, 제이미 캣 칼란

★ "자매 혹은 모녀 관계의 복잡성이 다른 인간 관계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는 또 얼마나 다른지 보여 주는 책, 경쟁 관계에 있는 여성들, 여성들간의 유대,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 탐구하는 매력적인 소설" - 『A Palm Beach Wife』의 저자, 수사나 마렌

해링턴 자매는 결코 잘 지냈던 적이 없었다. 언니 사라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이벤트 플래너였고, 여동생 마리엘은 언니와 전혀 반대의 성격을 가진 보헤미안에 좋은 유전자는 혼자 다 물려받기라도 한 것처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더 큰일은 두 사람이 같은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리엘은 언니의 남자, 카터와의 결혼을 서두르고 사라는 두 사람의 결혼식을 망쳐버리고 싶었다. 이 세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유머와 감동이 넘치는 달콤한 로맨틱 코미디 소설이다.

7월, 사라가 갑자기 시카고를 떠나 고향 집으로 가게 된 건 엄마의 전화 때문이었다. 월요일 아침 한참 바쁘게 일하던 중 걸려온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는 자신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니 사라와 여동생 마리엘이 하루 빨리 집으로 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라는 5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잃게 될까 봐 순간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고 그날 오후 바로 비행기를 예약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엄마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마리엘 역시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사라는 마리엘의 이름을 듣자마자 몸이 굳었다. 지난 연말 파티에서 마리엘과 카터의 수상하리만큼 다정한 모습을 목격한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와 이야기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라는 여동생과 어떻게 한 공간에 머물 수 있을지, 엄마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생각하느라 괴로워하며 비행기에 올라탔고 착륙 후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골머리를 앓았다.

집에 도착하자 가사 도우미인 다나가 스파게티를 만드느라 집 안 곳곳에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고 전혀 우울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게다가 사라의 엄마 역시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를 맞이했다. 사라는 엄마가 죽음의 문턱까지 간 줄 알고 상사 눈치를 보며 1주일 휴가를 내고 부리나케 달려왔지만 배우 출신인 엄마는 사실 사라와

마리엘을 한 자리에 데려와 화해시키기 위해 완벽하게 연기를 한 것이었다. 엄마는 이제 2주 뒤면 열릴 마리엘과 카터의 결혼식에 사라가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사라의 자신만을 바라보던 등직한 남자를 남도 아닌 여동생에 빼앗기고 둘이 결혼하는 꼴을 결코 직접 볼 자신이 없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묻고 지나가려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다.

사라가 카터를 만난 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 년 되는 날이었다. 공교롭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사라와 카터가 단둘이 갇히게 되면서 이 인연을 계기로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그리고 1년 반 전, LA에서 지내던 사라의 카터와 마리엘을 비롯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출장 요리사와 바텐더까지 있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사라의 전문 이벤트 플래너답게 직접 파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집 이곳 저곳을 돌며 살피던 중 카터와 마리엘이 사람들을 피해 연인처럼 딱 붙어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날 사라의 곧 바로 카터와 헤어졌고 여동생 마리엘과도 절연했다.

사라는 끝까지 자신을 만류하는 엄마를 뒤로하고 다시 집을 챙기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 때 현관문이 열렸고 마리엘이 들어왔다. 순간 사라의 마리엘을 알아보지 못했다. 마리엘은 까무잡잡한 피부대신 백옥 같이 흰 피부를 자랑하고 있었고 플랫 슈즈가 아닌 명품 브랜드 하이힐에 루이비통 가방까지 들고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디즈니 공주도 낄 것 같지 않은 바위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라의 순간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었지만 마리엘이 서른 다섯 살이 되도록 한번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이 카터의 지갑에서 나온 것임을 바로 깨달았다.

사라는 집에서 나와 호텔에 묵었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기 위해 차를 빼던 중 한 남자가 운반 중이던 조각상을 실수로 치고 말았다. 그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데이비드 콜'이라는 남자로서 여자 친구의 조각상을 대신 운반 중이었다. 사라의 데이비드를 데리고 예술품 전문가인 자신의 지인에게 찾아가 자기 때문에 손상된 그 조각상을 수리해줄 것을 부탁한다. 이후 마리엘은 화해의 의미로 사라에게 자신의 신부 들러리가 되어주길 요청하고 사라의 전문 능력을 발휘해 사라의 결혼식을 망치고 카터를 되찾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사라의 약혼을 앞두고 있는 데이비드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마리엘과 카터는 결혼을 준비하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사라의 과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차지 하게 될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로맨스 소설이다.

<저자 소개>

메리 심즈(Mary Simses)는 어린 시절부터 단편 소설을 썼으며 잡지 출판사에서 경력을 쌓았다. 전작으로는 베스트셀러이자 영화로 제작된 바 있는 『The Irresistible Blueberry Bakeshop & Café』, 『The Rules of Love & Grammar』의 저자이다.

제목 : NO GOING BACK

가제 : 노라 왓츠 시리즈 3: 노 고잉 백 - 후퇴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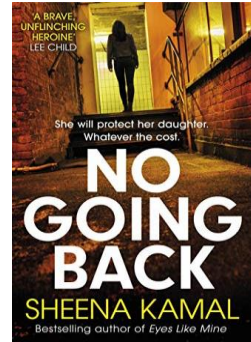
저자 : Sheena Kamal

출판사: Zaffre

발행일: 2020년 4월 2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밀레니엄 시리즈의 리스베트 살란데르를 떠올리게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스릴러

★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매력적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세심하게 짜인 줄거리의 스릴 넘치는 이야기" - 『The Well of Ice』의 저자 안드레아 카터

노라에겐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들이 무엇을 숨기려고 애쓰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비범한 재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낯선 사람을 볼 때만 발현되는 능력일 뿐, 노라는 정작 정말 가까운 이들과는 관계를 맺는 데 항상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노라는 남에게 쫓기는 일에는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사람이었다. 이 책의 첫 시리즈에서 노라는 1950년대 캐나다의 정부의 잔인한 정책으로 인해 강제로 미국에 입양 가게 된 캐나다 원주민 아버지가 어느 날 자살 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던 중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쫓아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두 번째 시리즈에서 노라는 15년 전 입양 보낸 딸 보니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직접 보니를 구하는 일에 뛰어들었다. 세 번째 시리즈에서 노라는 또 다시 누군가가 자신의 딸 보니와 노라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과연 이번에도 노라는 어둠의 손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될까?

캐나다 국경, 노라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캐나다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다. 국경 감찰관들은 짐도 하나 없이 혼자 여행 중인 노라를 수상하게 여겼고 그녀가 타고 있던 버스를 멈춰 세웠다. 그들은 노라가 미국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왜 갔었는지, 왜 실거주지인 밴쿠버로 가지 않고 토론토로 가고 있는지 등등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노라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던 디트로이트의 옛 집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이며 지금은 딸을 만나기 위해 토론토로 가는 것이라고 일일이 설명했다. 그 중 몇몇 이야기들은 거짓이었지만 딸을 보기 위해 토론토로 가고 있다는 말은 진실이었다. 이제 그녀의 딸 보니는 어느덧 열일곱 살이 된 숙녀였고 노라는 디트로이트에서 불에 타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난 후, 지금까지도 보니와 좀 더 잘 지내고 싶은 생각에 보니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토론토에 도착한 노라는 보니를 만나고 새삼 보니의 두 눈이 자신과 똑 닮았음을 발견하고 내심 놀라고 있었다. 그런 노라에게 보니는 대뜸 문신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문신은 일년 전 보니가 납치당했을 때 보았다는 그 문신이었다. 보니는 여전히 그 문신에 대해서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며 아직도 누군가가 자기를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날마다 그 문신의 모양을 잊지 않기 위해 문신을 그려 본다고 말했다. 노라 역시 익숙한 그 위험과 공포를 감지하고는 있었지만 우선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앞으로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며 그 문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모든 일은 사실 ‘다오’라는 한 남자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다. 다오는 이년 전 보니를 납치한, 한 부유한 화교 집안의 보안 담당을 맡고 있던 보안 요원이었다. 당시 보니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노라는 직접 보니를 구했고 그 이후로 다오는 복수를 위해 노라와 보니를 타깃으로 삼고 이를 갈고 있는 중이었다. 다오는 어린 시절 캐나다로 이민을 왔는데, 다오의 어머니는 언제나 다오에게 자신들을 받아 준 이 나라 캐나다를 위해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훗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판매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하인들까지 딸린 대저택에 살면서 어마어마한 힘과 재력을 뽐내며 그야말로 환각에 취해 날아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있었다. 곧 걸려온 전화에서 그는 노라가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모습을 감추었으며 아마도 밴쿠버에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오는 혹시 노라가 자신이 그녀를 쫓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챌 것은 아닌지 불안해졌다. 그러자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부숴버리고 싶은 분노에 사로 잡힌다.

한편 노라는 우선 밴쿠버로 돌아가 자신의 반려견 위스퍼를 대신 돌봐주고 있던 죽은 친구 세바스찬의 연인인 레오에게 찾아갔다. 하지만 레오는 노라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노라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위스퍼를 자신이 계속 기르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한 때 노라를 좋아했던 사립탐정 바라주카에게 전화를 걸어 그에게 노라를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 바라주카는 전화로 노라에게 최근 약물 중독으로 죽은 사람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한 갱집단이 디트로이트부터 시작해 노라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해준다. 노라는 그 뒤에 다오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가 자신과 보니를 찾아내기전 먼저 다오를 찾아내기로 결심한다. 노라는 바라주카와 억만장자 플레이보이인 버나드와 함께 캐나다와 동남아시아를 넘나들며 다오와 그의 무리들을 쫓기 시작한다. 노라는 과연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흉악한 사람들로부터 딸과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독특하고 매력적인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긴 호흡의 재치가 넘치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시나 카말은(Sheena Kamal)은 카리브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캐나다로 이민왔다. 그녀는 토론토 대학교에서 정치 과학 HBA를 취득했으며 노숙자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 리더십과 행동주의에 대한 논문으로 TD 캐나다 신탁 장학금을 받았다. 또한 카말은 영화 및 TV 산업을 위한 범죄 및 수사 저널리즘 연구자이기도 하다. 전작으로는 노라 왓츠 시리즈 『Eyes Like Mine』, 『It All Falls Down』 등이 있다.

NON-FICTION

제목 : HUNTING THE FALCON

가제 : 당신이 몰랐던 앤 불린: 헨리 8세의 팜프파탈?

헨리 8세의 정치적 파트너!

저자 : Julia Fox , John Guy

출판사: Bloomsbury

발행일: 2022년 여름

분량 : 약 500 페이지

장르 : 역사



*** 헨리 8 세의 구애, 짧은 결혼 생활, 앤 불린의 잔인한 처형, 이 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담은 역사서**

*** 열띤 옥션을 통해 블룸즈버리에 판권 계약!**

이 책은 한 남자가 결혼 후에도 끊임없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향한 강박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남자는 바로 영국 왕 헨리 8세로 그가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표출했던 대상은 바로 '앤 불린'이라는 여자였다. 헨리는 조용하고 완고한 성격에 자기애가 강하고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남자였다. 한편, 앤 역시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이고 역시 넘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고 누구든 그녀의 매혹적인 눈길을 받길 원했다. 그녀가 왕좌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마침내 모든 것을 잃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귀족들의 경의를 한 몸에 받았으며 수많은 위대한 시인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었다.

헨리 8 세와 앤 불린의 관계는 유럽 여러 나라의 왕과 왕비들이 이탈리아 반도를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개신교 개혁가들의 사상이 대두되면서 유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던 그 시기 가운데에 있었다. 수도원의 해체와 함께 그들의 강렬했던 연애사의 막이 내리던 즈음을 그린 앤의 이야기는 힐러리 맨텔의 『Thomas Cromwell 3 부작』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럽 전역에 있는 기록 보관소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알던 앤의 이야기는 실제와는 꽤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 동안 알려져 왔던 것과는 달리 앤은 팜프파탈도 아니었고 역사서에서 주로 묘사해왔던 내용과는 달리 처연히 죽어간 무고한 희생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헨리 왕의 법정에서 권력 투쟁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싸운 탁월한 일류 정치가였다. 앤은 헨리 왕에게 있어 단순한 정욕의 대상이 아니라 날카로운 지력을 발휘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정치 파트너였으며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거침없이 논쟁을 벌였던 상대였다. 헨리 왕은 언제나 그녀를 다른 남성 고문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대했고 야심가 크롬웰 역시 헨리 왕이 앤을 존중하는 만큼이나 그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줄리아 폭스와 존 가이는 그들의 구애 형태와 결혼 생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이 세상에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진실이 어떻게, 얼마나 왜곡되어왔는지, 앤의 삶에 대해 연구한 전기 학자들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지 짚어본다. 방대한 기록물들과 예술사적 발견을 통한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숨겨진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밝히는 책이다.

<저자 소개>

줄리아 폭스 (Julia Fox)는 런던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강의하는 역사학자이자 작가이다. 전작으로는 『Jane Boleyn: The Infamous Lady, Rochford』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Sister Queens: Katherine of Aragon and Juana Queen of Castile』이 있다.

존 가이 (John Guy)는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이자 케임브리지 클레어 칼리지의 연구원이며, 방송인이다. 그는 여러 편의 논문들을 저술했으며, 전작으로는 『My Heart is My Own: The Mary of Queen of Scots』와 북미 도서 비평 어워드에서 전기 부문 최종 후보로 선정된 바 있으며 시얼샤 로넌과 마고로비가 출연한 영화의 원작인 『Queen of Scots: Mary Stuart』가 있다. 그의 책은 총 6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제목 : SURVIVING A STARTUP

가제 : 스타트업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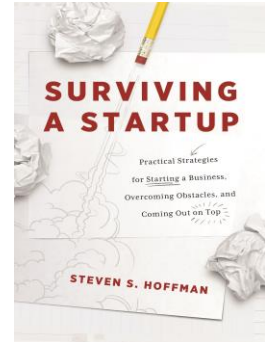
저자 : Steven Hoffman

출판사: HarperCollins Leadership

발행일: 2021년 4월 20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경영



***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라고 불리는 Founders Space의 CEO가 직접 알려주는 스타트업 가이드**

스타트업 세계에서 구루와 같은 존재인 저자 스티븐 호프만이 스타트업 관련 강연 행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그냥 바로 스타트업에 뛰어들어야 하나, 아니면 앞서 더 많은 직무 경험을 쌓아야 되는가?’이다. 이 질문에 저자는 언제나 오히려 ‘왜 그렇게 하고 싶나요?’라고 되묻는다.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스타트업 업계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저 서류에 휘말려서 무작정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들이 다 누리고 있는 기회를 행여 자기만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과 쉽게,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단순한 이런 판타지를 내려놓고, 얼마나 큰 성공 가능성을 가진 든든한 사업 아이템과 비즈니스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업가가 된다는 것은 많은 스트레스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100%를 사업에 헌신하지 않는 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모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환상과 달리 실제로 90%에 달하는 스타트업 신생 기업들이 실패의 고배를 마신다. 성공의 길에는 함정과 장애물들로 가득하다. 스타트업 운영 중에 한 번 잘못 내린 결정은 소규모 회사 경우 완전히 파산에 이르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스타트업 기업가들은 이 가혹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살아 남기 위해 스타트업 운영 방식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가감 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거침없는 조언들과 정곡을 찌르는 충고를 전하고 있다. 이 책은 조용히 침몰해가는 팀들을 상대하면서 막다른 길에 이르러 시간과 돈, 자신감을 잃고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이 책은 프로세스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저자는 스스로 스타트업 업체를 운영했던 경험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창립자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상대로 멘토링을 하면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고난을 돌파하는 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현장에서 기업가들을 비롯한 뛰어난 인재들이 위험 요소를 뛰어넘고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회사가 어떻게 진정한 가치를 창출해내는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성공하는 반면 왜 다른 모델은 처참히 실패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이에 더해 저자는 모든 창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난감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한다. 예를 들면 충분한 자금 없이도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방법, 기업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요소들, 큰 이익을 위해 과연 얼마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된 질문들이다. 스타트업의 본질을 철저히 분석하고 단계별 안내를 통해 재앙을 불러올 실수를 피하고 스타트업 업계에서 살아남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이다.

<목차>

섹션 1.

악마의 사탕: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것

1. 도약
2. 스타트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올바른 이유들
3. 부채 채권
4. 당신의 아이디어는 쓰레기인가?
5. 좋은 팀이란?
6. 재능에 대한 대가
7. 경쟁사를 모방해야 할까?
8.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가?
9. 문제를 정의하는 것

(이하 생략, 7 섹션 90개의 항목으로 구성)

<저자 소개>

스티븐 호프만(Steven Hoffman)은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중 하나인 Founders Space의 CEO로서 20년 넘게 100여 개의 새로운 산업체를 멘토링하고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 중 하나이다. 현재 그는 벤처 자금 지원을 받은 3개의 스타트업 회사를 설립하여 여전히 스타트업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목 : THE ONES WE'VE BEEN WAITING FOR

가제 : 밀레니얼 세대의 새로운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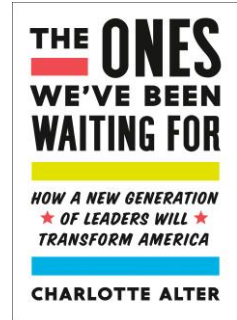
저자 : Charlotte Alter

출판사: Viking Press USA

발행일: 2020년 1월 20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정치, 사회



- * “타임지 정치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필력을 자랑하는 샬럿 알터! 저자는 이 세대의 초상에 대해 명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 「LA 타임즈」
- * “요즘의 젊은 세대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책” - 「뉴욕 타임즈 북 리뷰」
- * 한 훌륭한 젊은 기자가 포착한 리더십에 대한 낙관적인 청사진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흔히 '밀레니얼 세대'라고 일컫는다. 타임지와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요 필자인 저자 샬럿 알터는 이 밀레니얼 세대가 곧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미 현재 노동 가능 인구와 유권자 그룹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70년대 미국 사회를 장악한 백인 집단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세계가 점점 더 젊어지고 다양해지며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현 미 의회에서는 26명의 밀레니얼 세대 의원들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중반과 비교하면 거의 다섯 배가 증가했다. 그들은 중서부 도시와 대학 도시를 관장하고 있으며 시의회에 출사표를 던지고 주 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현재 본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학자금 대출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유자재로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기술이 인간의 복지에 해가 되지 않도록 기술을 통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책에서 샬럿 알터는 국가를 재건하는 이 젊은 지도자 계층을 분석하며, 10대에는 9/11을 경험하고 20대 초반에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복무를 마쳤으며 현재 월 스트리트와 BLM (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지배할 핵심 집단이 될지 살펴본다. 진보적인 선동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와 민주당 대권 후보 피트 부티지그(Pet Buttigieg), 공화당 엘리스 스테파니크(Elise Stefanik)에 이르기까지 밀레니엄 지도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저자는 이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의 지도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정치적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보여줄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미 기술, 상업 및 미디어에 혁명을 일으켜 우리 시대의 주요 사회 운동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세계는 아직 혼란에 빠져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혼돈 속에서도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을 책임지게 될 경우 어떤 희망찬 미래가 도래할 것인지 선보인다.

<목차>

- 1장. 어느 화창한 화요일
- 2장. 해리포터와 왈라비들의 출산
- 3장. 대학에 가는 것은 빗쟁이가 된다는 것
- 4장. 마지막 공룡들
- 5장. 절대 끝나지 않을 전쟁
- 6장. 로켓 우주선
- 7장. 충돌
- 8장. 시스템 고치기
- (이하 생략, 총 19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샬롯 알터(Charlotte Alter)는 타임지의 전국 특파원이며 뉴욕 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글을 기고했다. 또한 그녀는 Good Morning America, Morning Joe, The Last Word 및 CNN 방송에도 출연한 바 있으며 Alter Family Politics라는 라디오쇼에도 공동 호스트로 출연 중이다.

제목 : THE MIND OF A MURDERER

가제 : 살인자의 심리: 인간은 왜 인간을 죽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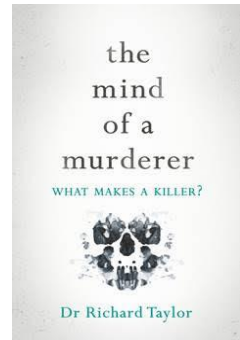
저자 : Richard Taylor

출판사: Wildfire

발행일: 2021년 1월 21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심리, 범죄



*** 영국에서 가장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법의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들여다본 우리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관한 이야기**

*** 살인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하는 책**

살인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범행 동기와 심리를 분석하는 리처드 테일러 박사는 살인은 이제 범죄가 아니라 공중 보건의 주요 의제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2017년만해도 전 세계적으로 464,000명에 달하는 살인 사건 피해자가 발생했다. 살인 범죄는 하루 1,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무장 충돌로 인한 8만 9천명의 사망자와 테러로 2만 6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약 87,000명에 해당하는 성인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 고의적 살인 사건으로 사망했으며, 그 중 5 만 명은 연인이나 배우자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살해 당했다.

UN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살인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에 이르게 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영국 사법부에서는 살인을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여왕이 통치하는 평화 가운데 합리적인 정신을 가진 생명체를 불법적으로 살해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인정되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라고 판단한다.

대체 사람들은 왜 사람을 죽이는 것일까? 대부분의 살인 사건을 살펴보면 분노, 충동, 공포, 질투와 같은 극도의 '정상적 상태', 다시 말해 그나마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이긴 하지만 살해 당시 이들의 정신 상태와 정신적 장애 상태에는 분명 아주 미세한 선이 존재한다. 특히 정신병증을 가진 살인범을 연구해보면 분명 그 사람의 정신 상태에는 표준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변화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현실성을 완전히 상실해 정신병적 망상과 환각에 빠진 살인범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증상은 정신분열증과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일반적으로 정신 분열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1 % 미만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 중에서는 무려 6-11 % 정도를 차지한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집단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19배나 더 많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신분열증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자해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 소수가 벌이는 폭력적인 행동만 보고 그 집단을 낙인 찍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확률이 제법 높아졌다는 사실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더해 요즘은 낯선 사람에 의한 살인 사건 보다 가까운 사람에 의해 살해당하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이 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남성 파트너들 때문에 사망하는 여성 파트너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살해당할 위험도가 가장 높은 인구 집단은 1세 미만 영아로 이 때 가해자는 대부분 친모이다. 게다가 예전과 달리 서구권에서는 술이나 마약 때문에 발생하는 살인보다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강도 상해 살인사건이 부쩍 증가했다. 대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는 변화하고 있는 살인 사건 경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괴물 같은 행동이 곧 괴물을 낳는 것일까? 잘못된 상황에 처하면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살인범이 될 수 있는 것일까? 테일러 박사는 그가 직접 만난 살인 용의자들과 죄수, 환자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설명과 함께 우리가 왜 그토록 많은 노력을 들여 이들을 치료해야 하는 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들려준다. 이 책은 살인자들의 마음 속을 탐구하는 매력적인 책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는 한 의사의 삶과 그가 가진 인간 정신에 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책이다.

<저자 소개>

리처드 테일러(Richard Taylor)는 싱가포르에서 태어나 잉글랜드 남부에서 자랐다. 테일러 박사는 살인 사건의 전문가측 증인이자 법의학과 정신과 전문의이다. 그는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의사로 훈련을 받았고, A & E에서 주니어 닥터로 일하며 그곳에서 칼에 찔려 고통받던 희생자들을 치료하던 중 살인의 동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법의학 정신과로 전공을 옮겼다. 또한 그는 Bethlem 및 Maudsley 병원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컨설턴트 법의학 정신과 의사로 근무했다. 그 이후 그는 강간, 방화, 심각한 폭력, 살인 및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 범죄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쌓았다.

제목 : BURN

가제 : 탄소를 잡아라!: 바이오 숯, 지구 온난화의 새로운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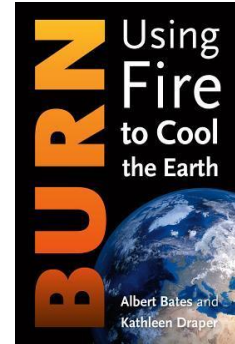
저자 : Albert Bates, Kathleen Draper

출판사: Chelsea Green Publishing Company

발행일: 2019년 2월 26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환경



*** 탄소를 활용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

*** 800-CEO-READ 에디터 선정 2019년 3월의 책**

기후 재앙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구상 모든 인간들이 합심하여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한다. 소비주의를 버리고 나무와 습지, 산호를 생각하고, 다시 토양을 일구어 사막을 녹지로 바꾸고 고래, 뿔뿔, 늑대를 구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지구와 생태계 그리고 인류를 살리는 것이 가능 할까? 이 책의 저자들은 기후변화를 지연시키고 지구의 재생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인 온실가스의 흐름을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탄소의 순환 구조와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문명 2.0이다.

황폐해진 고대의 땅을 다시 테라 프레타(: 비옥한 검은 땅)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아마존 선조들 덕분에 한 놀라운 비밀이 밝혀졌다. 최근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유기 물질을 오래 지속 가능한 탄소로 전환하는 토착민들의 관습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하지만 농업에서만 아니라 현재 '바이오 숯'이라고 불리는 이 탄화 물질의 장점은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열분해 탄소는 석탄, 석유,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 덕분에 자연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탄소 순환의 흐름을 바꾸고 잠재력들을 최대한 이용한다면 우리 지구는 다시 초록 지구로 변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재생 가능한 바이오 매스 또는 탄소 포집 에너지 시스템을 넘어서 다음 단계의 인간 발전에 대한 더 큰 대담한 비전을 제공하고, 이미 소진된 자원으로부터 나온 탄소를 토양 및 농업 시스템으로 옮겨와 식품의 영양소 밀도를 높이고 토양 표면을 재건하고 홍수와 가뭄에 고딕없는 도시와 농지를 조성하는데 사용하는 방법, 탄소 여과기와 영양 캐스케이드 장치를 통해 물을 정화하는 법에 대해 설명한다. 당장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개발된 이 기술에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이 방법은 많은 기업들에게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활용 개선을 통해 경제적 선순환을 일으키며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에는 건물, 도로, 교량 및 항구와 같은 도시 인프라를 교체하고 철, 콘크리트, 중합체 및 복합 재료를 생물학적 탄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공급을 장려하여 경제 개편을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도 실려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담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공하는 책이다.

<목차>

서문

머리말

1 부. 탄소 변화: 천적에서 동맹국으로

1 장. 찰스 킬링의 곡선

2 장. X 축 Y축

3장. 하나님의 자신의 원자

4장. 탄소 카스케이드

2부. 탄소 구성 : 신선한 기초

5장. 탄소 하드스케이프

6장. 환상적인 플라스틱

7장. 종이 추적

8장. 여과 국가

(이하 생략, 총 4부 20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알버트 베이츠 (Albert Bates)는 원주민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Right Livelihood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지난 40년 동안 그는 미국 테네시에서 공동체 농장을 일구어 왔으며, 60개국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 건축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문화에 대한 강의를 열었다. 또한 그는 Global Ecovillage Network의 공동 창립자이자 전 회장이며 유엔 기후 대화의 GEN 대표이다. 종종 ETC Podcast에 출연하고 있으며 트위터 아이디는 @peaksurfer이다.

캐슬린 드레이퍼 (Kathleen Draper)는 지난 6 년간 바이오 숯 연구,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분야에 깊이 관여해 왔다. 그녀는 IBI(biobiochar Initiative)의 이사회 멤버, IBI의 바이오 숯 교육 웹 세미나 시리즈의 중재자 및 Ithaka Institute of Carbon Intelligence의 미국 지부 이사로서 전 세계의 바이오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녀는 여러 국가에서 바이오 숯에 대해 강의했으며 바이오 숯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The Biochar Journal의 편집자이다.

제목 : MY LIFE IN PLANTS

가제 : 내 인생의 초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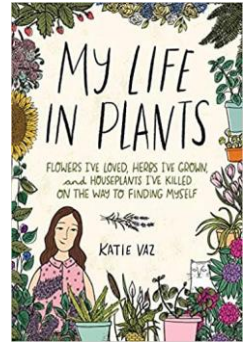
저자 : Katie Vaz

출판사: Andrews McMeel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9월 1일

분량 : 144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나는 그녀가 만난 식물과 그 식물들과 얽힌 개인적인 그녀의 추억에 대해 읽는 것이 정말 좋았다. 이 책은 식물 애호가든 물론이고 넓은 독자층의 감성을 자극할 것이다. 또한 아름다운 삽화들 또한 매력적이다." - 『A Life of Gratitude』의 저자, 로리 로버츠

우리가 각자의 지나간 인생이나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에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만들어 준 케첩 피자도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생애 처음 만난 친구였던 반려견의 모습을 통해 유년 시절을 떠올리기도 할 것이다. 감성적이고 섬세한 글과 아름다운 삽화가 실린 책들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케이티 바즈는 이 신작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결혼식 당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39 종의 식물들을 통해 지나간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작품 속 일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어린 시절 그녀는 부모님, 여동생과 함께 주변이 온통 숲으로 둘러 싸여 있는 한 언덕 위에 살았다. 당시 저자는 어둠을 무서워했고 밤마다 숲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당시 집으로 이어지는 비포장 도로 양쪽에는 배수 도랑이 있었는데 그 도랑에는 '부들개지'라는 키가 큰 풀들이 가득 차있었다. 그 식물의 긴 줄기 끝에는 마치 만화 속에 나오는 핫도그처럼 생긴 것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저자의 집 뒤편에는 더 무성하고 키가 큰 부들개지들이 가득한 연못이 있었다. 부들개지와 더불어 무성한 풀들이 우거진 그 곳에 가면 수평선조차 보이지 않았고 때문에 저자는 그곳에 서서 자신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곤 했다. 그 아득한 고요 속에서 저자는 외롭고 섬뜩한 느낌마저 받았다. 그런 마음을 알게 된 저자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언젠가 어른이 되면 그녀 역시 이 집을 이 세상 유일한 피난처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당시 저자는 그 고독감을 너무나 싫어했다. 그래서 '부들개지'라는 식물은 아직도 그녀에게 '외로움'과 '고립감'을 상징하는 식물로 남아있다.

이처럼 그녀가 세 살 무렵 어느 대회 무대에 올랐을 때 청 테이프에 밑동이 감겨 있던 야생화 꽃다발, 슬픈 일이 있은 후 그녀의 부엌에 다시 생기를 가져다준 바질등 그녀의 인생에서 소중한 의미가 있는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회고록에는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따뜻하며 유쾌한 순간들이 녹아 있다. 저자는 식물들과 얽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순간, 평범한 순간 모두가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될 수 있는지,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들려준다. 이 책은 그루터기 화분에 심은 관엽 식물에서 복잡하고 섬세한 꽃꽂이에 이르기까지 자기 발견의 여정과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회고록이다.

<목차>

제 1 장. 야생화.

제 2 장. 부들개지

제 3 장. 알로에 베라

제 5 장. 대황.

제 6 장. 파리지옥

제 7 장. 카네이션

제 8 장. 토마토 식물.

제 9 장. 제라늄

(이하 생략, 총 39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케이티 바즈 (Katie Vaz)는 뉴욕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Etsy Shop과 북미 전역의 상점에서 판매되는 카드, 인쇄물 및 기타 문구 제품의 디자인을 맡고 있다. 저자는 뉴욕 로체스터 소재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그래픽 디자인(BFA)을, 독일 데사우에있는 Anhalt Applied Sciences에서 통합 디자인(MA)을 공부했다